

이명현 박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로 KVN 연세 전파천문대가 위치한 연세대학교로 향했다. 신촌역에서 내려 학생들로 붐비는 신촌 거리를 걸어 연세대에 들어섰다. 이명현 박사로부터 캠퍼스 약도를 메일로 받아서 찾기에 대충 천문대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한참을 들어가도 쉽게 눈에 떨어지지 않았던 집시안테나는 보이지 않았다. 저기쯤이라 생각하는 건물을 돌아가니 그제야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전파망원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명현 박사의 안내를 받아 비오는 날씨만큼이나 쌀쌀해 보이는 전파관측동으로 들어섰다.

“시험 관측 중인데, 관측 당번조가 있을 때는 예닐곱 명 정도로 북적됩니다. 그렇지만 비오는 때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집시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헤쳐 놓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지금을 가동시켜놓고 돌아간 것 같네요.”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에도 전파망원경은 맑은 하늘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방울에 민감한 대역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험 관측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이명현 박사의 소속은 연세대학교 천문대이고, 책임연구원이 직책이다. 현재 연세대에는 한국천문연구원 KVN 팀이 파견돼 있는데, 이명현 박사는 이 두 기관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연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전파천문학을 공부했죠. 가까이 있는 은하들을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천문에는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마추어천문가협회에 가입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아마추어 활동을 하다가 천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은하를 연구하게 된 것도 아마추어 활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입학하기 한 해 전인가 연세대에 외부은하를 전공한 천문석 교수님이 오셨어요. 아마추어천문가협회에는 UFO부, 태양계부, 은하계부 등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저는 은하계부였거든요. 외부은하, 우주론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정보를 얻다보니 연세대에 은하를 전공한 교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매일같이 수학과 물리만 보다보니 대학 1, 2학년을 지나면서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아마추어 시절 망원경으로 봐왔던 모습과 전파로 보는 우주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파천문학도 광학천문학만큼 이미지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미는 광학이나 전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관측자로 출발한 이명현 박사에게 전파천문학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전파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다.

“전파망원경의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광학 같은 경우 상용 망원경도 많고, 큰 망원경도 정형화된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파망원경은 천문대마다 기기들이 다르고, 데이터 분석하는 패키지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반면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자유도는 훨씬 넓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죠.”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사업은 연세대, 울산대, 탐라대에 각각 21m 전파망원경을 설치하고 세 사이트에서 수신된 전파를 간섭하여 초정밀 측지와 천체 이미지 합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연 세 대 학 교 천 문 대
이 명 현 박사



“현재 세 곳 모두 전파망원경은 건설이 끝난 상태입니다. 각 망원경에는 같은 수신기가 장착되는데, 현재는 완성된 수신기 1세트만 이곳 망원경에 장착해 시험 가동을 하고 있죠. 나머지 수신기는 올해 말쯤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많은 천문인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명현 박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주과학회에서 파견한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행사, 미디어, 학술 등 5개 분과가 있는데, 문화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천문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문화의 좋은 소재예요. 아마추어천문인도 많고, 막연하지만 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파트너로 삼아 이런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현시킨 행사로는, ‘문화, 우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세계 천문의 해 홈페이지(<http://www.astronomy2009.kr>) 웹진에 연재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에세이는 책으로 낼 계획입니다. SF 작가들과 소백산천문대에서 워크숍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과 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SF 단편을 쓰고, 역시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재가 있는데,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57년 이후 출생한 시인 50명에게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시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시집으로 나오고, 9월초에 이곳 천문대 앞마당에서 ‘별’ 시가 있는 별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는 충무로국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 콘택트와 같은 천문학 영화를 상영하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고, 미술 쪽에는 ‘SciArt 전시회’라고 해서 설치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란다.

“또 하나의 행사 주제는 ‘외계 지성체를

찾아라, SETI’입니다. 10월에 대전에서 국제우주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SETI 세션이 2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SETI 관련 과학자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초청해 작은 워크숍도 열고, 대중강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못 한 것 중 하나가 연극인데요, 옛 동독 극작가인 브레이크가 쓴 <갈릴레이의 생애>란 작품이 있어요. 5공까지만 해도 동독 작품이어서 금지됐었죠. 이를 공연할 계획인데, 다음 주에 연출가들을 만나보면 무대에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려면, 자칫 교수로서의 직무에는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걸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각 분야마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 파트너가 있습니다. 학생 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문예반 활동도 했고, 연극 연출도 했던 것들이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그쪽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친분을 쌓아 놓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 쓰는 데 남다른 솜씨를 갖고 있다 보니 원고 청탁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책을 내기로 계약한 것도 몇 군데 있지만 계약이행을 못하고 있다.

“책을 써야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아요. 출판계에 친분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약한 게 몇 건 있는데, 원고를 못 넘기고 있어요. 올해는 한 두 편이라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 빛’을 지고 사는 거죠.”

글 빛에, KVN 사업, 그리고 세계 천문의 해 등, 잠시의 여유도 없을 것 같은 이명현 박사. 그래도 시간이 난다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영화 보고,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미술관 돌아보기도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나절동안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가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갔네요.”



영화는 그래픽이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올해 기대작인 <트랜스포머 2>를 기할 때는, 마치 변신로봇 상자를 손에 쥘 아이처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세계 천문의 해를 무난히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회에 SETI 교육과 홍보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KVN이 시험 관측 중인데, 이 사업도 잘 끝나서 멋지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SETI나 우주생물학을 대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글 빛을 갈아야겠죠.”

이명현 박사는 아내와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나눈다고 한다. 찢어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그 걸모습만큼이나 자유로운 영혼과 삶을 꿈꾸는 이명현 박사. 부부의 막연한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바라본다.